

[감사의 글] -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제11대 이사장직을 마치며-

12월의 문턱에서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는 메르스 사태로 우리 사회가 들끓었고, 그 때문에 많은 의료인들이 정신적, 물리적 헌신을 하였지만, 반면에 의료계가 본분을 되찾고 국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서고 인정받는 보람도 얻은 한 해였습니다.

두 해 전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제 11대 이사장직에 취임하며, 저는 최우선적으로 다양한 임상과들로 이루어진 우리 학회의 특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임기 중 이루고자하는 목표로 첫째, 차세대 알레르기 전문 의사를 육성하고, 둘째, 산하 연구팀들을 활성화시키며, 셋째, WAC2015 개최를 통하여 우리 학회가 국제적 위상을 갖춘 학술단체로 거듭나는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차세대 알레르기의사를 육성하는 목표는 학회 내에 수련이사 직을 신설하여 내과학회와 공조를 강화하였고, 매해 내과전공의를 위한 교육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구팀의 활성화는 기존에 없었던 비염연구팀을 신설하였고, 첫 성과로 한국제약협회의 연구비를 받아 '알레르기비염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향후 내용은 지속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할 것이나 첫 알레르기비염 가이드라인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학회의 국제적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일은 지난 2년간 세계내과학회, East Asia Symposium, World Allergy Congress 2015 등 세 번의 성공적인 국제학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계기를 만들었다 자부합니다. 특히 이번 WAC2015에는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71개국에서 2280명 이상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우리 학회의 젊은 회원들이 다수 강의를 맡아 국제무대에서 연자로 활약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며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여러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유능하고 헌신적인 임원진, 그리고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제가 나름의 족적을 남기고 큰 과오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여러 회원님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란 올림